

3%대 고물가 흐름 꺾일까...가계 건전성 악화여부 주목

통계청 5일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7일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도 공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3%대 고공행진 중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진정 기미를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가계 건전성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을지도 주목된다. 2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5일 통계청은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하반기 들어 예상치 못한 고물가 흐름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8% 치솟으며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 7월 물가가 2.3%까지 하락했던 물가 상승률은 한 달 만에 8월 3%대(3.4%)로 올라서더니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3%대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불안정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 여파가 가공식품 물가를 자극했다. 여름철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도 요동쳤다. 정부는 물가가 하반기 경기 반등에 악재로 작용하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민 경제와 밀접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소관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을 책임지도록 했다. 식품·외식물가도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업체들을 찾아가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다행히 휘발유 가격이 10월보다 0.15원 가까이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11월 물가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월 소비자물가가 3.8% 상승 후 11월 물가는 확연히 둔화되고 있다"면서 "3.8%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전망한다"고 관측했다. 7일에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가계 자산 규모와 이자 부담 정도, 소득과 지출 등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1년전 우리나라 가구 평균 자산은 5억 4772만원으로 전년보다 9.0%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5602만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4.7% 늘어난 6414만원, 부채는 4.2% 증가한 9170만원이었다. 지난해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조사 시점이 2022년 3월로 그 여파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조사에서는 가계 재무건전성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수권 기자



국제 금값 상승에 국내 금값도 올라 국내 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금값도 오르는 가운데 금거래소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이 지내고 있다. 금값 상승은 최근 달러 약세 및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KS벽지, 2024년 합지벽지 신제품 '벨루체'

벽지기업 KS벽지가 2024년 합지벽지 신제품 '벨루체(VELUCE)'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S벽지의 합지벽지 대표 브랜드인 '벨루체'의 테마는 'HOME DRESSING : Ready-to-wear'다. 사람들 각자 개인의 공간에 자신을 투영해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벨루체'는 이러한 테마에 맞춰 손끝으로 느껴지는 입체감과 부드러운 감촉으로 편안함을 주는 패브릭 벽지와, 단조로운 벽을 재미있고 화사하게 밝혀줌으로써 색다름을 연출해주는 포인트 벽지로 구성됐다. 다채로운 텍스처와 트렌디한 패턴으로 나만의 공간을 취향에 맞춰 임해보는 5가지의



채터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뉴스

"최대 42만원 할인"...'스마트카라로 해피윈터' 프로모션



친환경 음식물처리기 브랜드 스마트카라가 연말을 맞아 이번 달 말일까지 '스마트카라로 해피윈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최대 17만원 상당의 사은품 증정 혜택도

스마트카라는 12월 한 달간 스마트카라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할 시 ▲스마트카라 400 Pro 10만원 ▲스마트카라 400 Pro 스토리타워 패키지 15만원 ▲노노베이션 42만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17만원 상당의 사은품 증정 혜택도 준비했다.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락앤락 착착 밀폐용기 20종과 에코필터 세트 100% 추가

증정한다. 행사 기간 내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한 신규 고객에게는 웰컴 쿠폰 5000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는 고온 건조·분쇄 방식인 '수분제거기술'을 탑재해 터치 한 번으로 음식물의 부피를 최대 95% 감량해준다. 독자 개발한 3중 에코필터로 악취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고 처리 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을 99.9% 살균해 위생적이다.

김희면 기자

"전세사기 두려워"...전월세 수요 소형 아파트로 쏠린다

전세사기 여파에 빌라 외면...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가 전세 추월 아파트 풀림 현상에 동반간 지속..."서민 주거 사다리 붕괴 우려"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는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임대시장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에서 비(非)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주택 임대 수요가 소형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풀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주택 유형별 전국 전세거래 총액은 아파트가 181조5000억원, 비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오피스텔)는 4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아파트 80.4%, 비아파트 19.6%로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다. 비아파트 비중이 20% 아래로 급감한 것은 지난 2011년 주택 임대 실거래가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권역별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수도권 178조4000억원, 지방 47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중은 수도권이 79%, 지방이 21%로,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지난해 22.2%에 비해 1.2%p(포인트) 낮아졌다. 2014년 2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5%, 수도권은 17.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61.9%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지역별·주택유형별 전세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빌라에서 빠져나간 주택 임대 수요는 아파트 전세나 월세로 전회하고 있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49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8년 5만9936건 ▲2019년 6만6463건 ▲2020년 7만9128건 ▲2021년 9만4074건 ▲2022년 11만2022건으로 증가세다.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10월 월세 거래량은 5만7761건, 전세 거래량은 5만7201건으로 월세 비중은 50.2%로 나타났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것은 1~10월 기준 처음이다. 월세 비중은 2019년 33.4%, 2020년 36.5%, 2021년 46.5%, 2022년 48.7%로 상승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가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6% 올라 5월 넷째 주 이후 28주 연속 상승했다.

광진구(0.25%)는 자양·구의동 선호단지 위주로, 성동구(0.20%)는 응봉·행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9%)는 서빙고·신계동 위주로, 노원구(0.19%)는 상계·중계동 교통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성북구(0.18%)는 돈암·정릉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고가매물의 경우 계약성

사를 위해 하향조정되는 모습 보이나, 학군지 및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매물가격 상승 유지 중"이라며 "매매 관망세에 따른 일부 전세수요 전환 등 혼조세 속 상승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빌라 전세값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값은 전달 대비 0.55%,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7% 올랐다. 반면 다세대주택 등 빌라를 의미하는 연립주택 전세값은 전국이 0.03% 상승, 서울은 0.01% 하락했다.

빌라 전세 거래량도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5만36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0% 감소했다. 전세사기 여파에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율은 2020년 70.7%에서 올해 53.2%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빌라 기피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사기 여파가 계속되면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주택 임대 수요가 감소하고, 아파트 풀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당분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구축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비아파트에서 월세를 선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아파트 전세, 월세 수요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에 임대 수요가 아파트에 몰리면서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선욱 기자

이케아 "280개 제품 할인전"...26일까지 연말 '겨울 세일'

이케아 코리아 전 매장 등에서 진행 예정

홈플러스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26일까지 '겨울 세일'을 진행한다.

2일 이케아 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겨울을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낮은 가격으로 집을 꾸미는 개성과 생활이 담긴 공간으로 꾸밀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을 비롯해 수납장, 책상, 테이블 등 약 280개의 홈플러스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행사 제품은 빈테르핀트(VINTERFINN) 인조

크리스마스 트리, 베칸트(BEKANT) 코너놀이 조형책상, 고드모르곤(GODMORGON) 양면형 거울수납장, 비에르코센(BJÖRKÅSEN) 접이식 테이블, 드라간(DRAGGAN) 카트 등이다.

이케아 코리아 전 매장(광명점, 고양점, 기흥점, 동부산점)과 공식 온라인 몰, 모바일 앱, 전화·채팅으로 주문이 가능한 원격 주문 서비스 '헤이오더'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희면 기자

